

지난해 광주·전남 소비 ‘마이너스 성장’

시내면세점 유치 무산·이마트 상무점 폐점 영향

광주 소매판매 기준년 이래 최하...감소폭 전국 두번째

지난해 광주·전남 소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최악의 성적을 냈다. 광주 시내면세점 유치 무산과 이마트 상무점 폐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시도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지역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 지수는 광주 100.2, 전남 101.5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보다 광주 -1.9%, 전남 -0.7% 하락한 수치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광주 소매판매 감소폭은 전국에서 충북(-2.4%) 다음으로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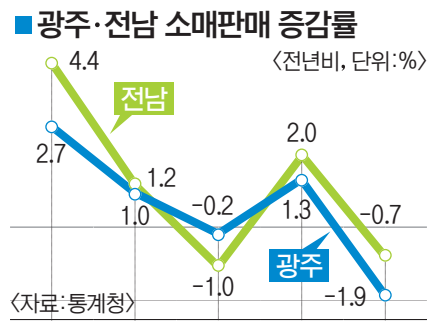
제주도는 10.7%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서울(5.1%), 경남(0.9%), 전북(0.5%), 인천(0.5%), 부산(0.1%) 등 6

개 시·도는 소매판매가 전년대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매판매 동향은 지역에 면세점이 있는지에 따라 갈렸다”며 “면세점이 있는 시도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면세점 매출이 30%대로 뛰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면세점이 없어 소비를 이끄는 요인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주 소매판매는 기준선인 ‘100선’을 턱걸이하며 통계 기준연도인 2015년 이래 최하를 기록했다.

특히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매출 감소폭(-4%)이 가장 컸고, 전문소매점(-3.8%), 백화점(-2.5%), 슈퍼·잡화·편의점(-1.8%)도 부진을 면치 못했



다. 소매판매에서 유일하게 증가폭을 보인 업태는 승용차·연료소매점(2.6% ↑) 뿐이었다.

전남지역 역시 승용차·연료소매점 업태만 소폭(0.2%) 성장했고 나머지 대형마트(-1.7%), 전문소매점(-1.6%), 슈퍼·잡화·편의점(-0.1%) 매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이날 소매판매와 함께 발표된 서비스업

생산 부문 역시 광주는 기준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폭(1.4% ↑)을 보였다. 광주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8.3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107.6으로 9번째를 차지했고, 3년 연속 ‘1%대 성장’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제주(2.3%)였다.

광주지역 서비스업 생산은 보건·사회복지(7.9%)와 정보통신(3.5%), 부동산(2.6%) 업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고, 교육(-1.4%), 도소매(-1.1%)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전남 서비스업 가운데 수도·하수·폐기물처리(10.8%), 보건·사회복지(5.8%), 부동산(4.6%) 업종 등은 생산이 늘었고 감소한 업종은 도소매(-1.1%), 교육(-1.1%) 뿐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1월 무역수지

3억6500만달러 흑자

올 1월 광주·전남지역 무역수지가 3억 65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6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1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2.3% 감소한 36억8600만달러, 수입은 같은 기간 2.9% 증가한 33억21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5% 감소한 3억 6500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1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1.5% 감소한 10억5000만 달러, 수입은 6.6% 감소한 4억7800만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5억7200만달러로 무역흑자를 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코로나 19 피해업체 지원 협약식

광주시지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대출자금과 최고 0.5%포인트 금리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은 지난 13일 동구 총장로5가 포용금융센터에서 코로나19 확산 피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광역시지회와 ‘소상공인 포용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대출자금과 최고 0.5%포인트 금리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기아차 광주공장 봉고·트럭라인 휴업 19일까지 연장

스포티지·쏘울 생산 2공장 14일부터 가동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부품 공급이 원활치 않아 공장을 멈췄던 기아자동차가 일부 공장의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기아차 광주 3공장의 봉고·트럭 라인인 휴업을 당초 14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카니발과 스텔러, K9, 스토닉 등

을 생산하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도 휴업을 오는 18일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앞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배선 장치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광주 3공장과 소하리공장 휴업 기간을 10~11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가 재차 연장한 것이다.

이외 광주 1·3공장(대형버스 라인)은 지난 11일까지 휴무하고 12일부터 정상 가동 중이며, 스포티지와 쏘울을 만드는 광주 2공장도 지난 14일부터 문을 열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중국 부품공장이 시범 가동을 거쳐 생산을 시작했지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추가 휴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금호타이어 임원 책임경영 실천 자사주 매입

실적개선·주가 방어 차원

영업이익 달성 원년의 해

금호타이어 전대진 사장 등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실적회복에 나서겠다는 책임경영을 선언했다.

1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대진 사장은 지난 7일 자사주 1만주를 매입했다. 김상엽 영업마케팅본부장도 같은 날 자사주 7000주를 매입한 것에 이어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주요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은 실적개선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자 주가 방어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으로, 책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매각 이슈로 인한 여파로 2016년 4분기 이후 영업손실을 겪어왔던 금호타이어는 2018년 더블스타의 투자유치를 기점으로 실적 반등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후 경영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지난해 2분기에는 10분기 만에 흑자전환을 달성, 3분기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연간실적 역시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기아 셀토스

OE 전량 공급과 아우디에 OE 공급을 시작하는 등 눈에 띄는 영업성과를 거뒀다. 2018년부터 내수시장 1위를 지켜낸 것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전반적인 부침과 미·이란 충돌, 코로나19 사태 등 악재로 단기간 주가가 급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는 금호타이어는 전 임직원이 매출 확대를 통해 영업이익 달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넘어 본격적인 재도약에 나설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금호타이어 측의 설명이다.

그만큼 임원진의 실적개선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이 이번 자사주 매입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영정상화를 통해 지난해 2분기부터 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지만 최근 악재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는 등 주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주가가 실적개선에 따른 합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왼쪽)과 길인환 여수광양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이 수소전기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차·여수광양항만공사 수소전기트럭 상용화 나선다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현대자동차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 상용화에 나선다.

현대차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현대자동차-여수광양항만공사 수소전기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하는 등 수소에너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항 내에 수소 충전소 구

축 부지를 제공하는 등 시범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물류 운송용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해 2023년까지 2대를 우선 도입하고 이듬해 10대를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기트럭은 광양항에서부터 부산까지 왕복 거리 약 320km 구간을 운행하게 된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약 2000㎡)를 제공해 2022년까지 광양항 내 수소충전소 1개소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